

EBS · 평가원 - 환경 윤리 OX [해설편]

1. 2019학년도 수능완성 140p 11번 '갑'

"식물은 영양과 성장, 생식의 능력을 지니며, 동물은 이것에 더해 육구의 능력을 지닌다. 오직 인간만이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사고의 생명 활동을 지닌다. 자연은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는 것이 하지 않는다."

2. 2020학년도 수능완성 54p 01번 '갑'

"식물은 영양, 성장, 재생산의 능력을 갖는다. 동물은 영양 이외에도 감각과 육구, 운동의 능력을 보유한다. 인간은 영양과 식육 이외에 사고의 능력을 보유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고유의 선(good)을 갖는다..."  
- 식물 또한 생식의 능력을 지닌다.

3-4. 2020학년도 수능완성 54p 01번 '을'

"(3)모든 자연물은 신의 계획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은 궁극적 선이고, 자연에서 발견된 신의 의도이기 때문에 (4)자연의 질서는 곧 도덕적 질서이다. 자연은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자연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조화는 신의 계획이 선함을 입증한다..."  
- 4 : 자연적 질서는 도덕적 질서와 동일하다. 따라서 무엇이 더 우월할 수 없다.

5.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 09번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 동물의 고통은 인간이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도와준다.

6. 2020학년도 수능완성 51p 1-(2)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 써만 복잡시킬 수 있다."  
-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이해한 자연의 법칙에 복잡할 때,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할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7. 2020학년도 수능완성 56p 06번 '갑'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8. 2020학년도 수능완성 115p 16번 '병'

"동물과 인간의 몸은 자동 장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영혼은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운동이나 생리 현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이성적 영혼은 인간의 사유에만 관여할 뿐이다."

9. 2017학년도 9월 모의고사 10번 <보기> ㄱ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10. 2020학년도 수능특강 88p 1-(1)

"도구적 자연을 토대로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유용성의 관점에서 자연을 인식함."

11. 2020학년도 수능특강 90p 기출 플러스 '을' 해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물, 식물, 나아가 무생물까지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2. 2020학년도 수능특강 96p 07번 '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폭력적이거나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13. 2020학년도 수능완성 51p 1-(2)

"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봄."

14-15. 2020학년도 수능완성 54p 02번

"인간 이외에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자들은 없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존재자들에 대해 의무를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14)생명이 있든 없든 자연에 대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15)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의무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도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16. 2019학년도 수능완성 36p 09번 '을'

"...동물 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보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가져오는 인간의 행복의 크기가 더 크다는 이유 때문에 동물 실험이 옹호될 수는 없다."

17. 2019학년도 수능완성 62p 닭은 꿀 문제 '을'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해관계를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즉 유정성(有情性, sentience)을 지닌 존재는 최소한 고통을 받지 않을 이해관계를 지닌다."  
- 선후관계가 바뀜.

18. 2019학년도 수능완성 65p 05번 '을'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권리에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물에게도 기본 권리가 있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녔느냐가 기준이 된다."

19.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15번 '갑'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20. 2020학년도 수능특강 89p 자료 플러스 해설

"인간이 아닌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moral patients)이지만 감정적인 생활을 할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모든 포유동물이 아닌 성장한 포유동물에 한한다.

EBS·평가원 - 환경 윤리 OX [해설편]

21. 2020학년도 수능특강 56p 06번 '을'  
"인간은 모든 살려고 하는 의지들에 대해 자신에게 부여했던 생명체의 경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또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자기 안에서 경험한다..."
22. 2019학년도 수능완성 65p 05번-해설 20p  
"테일러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목적론적 활동을 강조하며..."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근원적으로 자기 생명 활동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 활동의 목적론적 중심이다. 또한 테일러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목적론적 활동을 강조하므로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에 한한다.
- 23-24. 2020학년도 수능완성 51p 자료와 친해지기  
"...최소악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이지만 (23) 문명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 온 것들과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열린 자세로 동식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24)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란 최소악의 원리와 분배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비인간인 유기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리이다."  
- 23 : 문명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아닌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찾자고 주장한다.  
- 24 : 보상적 정의가 적용될 때는 최소악의 원리와 분배적 정의의 원리의 경우로만 한정하므로 자기 방어의 원리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25. 2020학년도 수능완성 118p 07번 '병'  
"지각력이 없으나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가진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짓는 특징은 그 존재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내재적 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 내재적 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생명은 없다.
26. 비상교육 교과서 126p 더 알아보기  
"...예컨대 사슴의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생태계 자생 식물을 멸종에 이를 정도로 해치고, 그에 따라 토양 침식이 야기될 정도로 우려가 되면, 그런 사슴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인간이 사라진 늑대와 같은 포식자 역할을 대행하여 사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사냥인 피식자의 개체 수 조절은 알맞은 정도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27. 2020학년도 수능특강 91p 4-(1)  
"전일론(전체론)적 관점에서 개체보다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생태계 자체에 관심을 가짐."  
- 개체가 아닌 (X) 개체보다 (O) 즉, 개체에도 관심을 가짐.
28. 2020학년도 수능특강 91p 4-(2)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 생명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장한다면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 개발 행위는 허용 가능하다.

29. 2020학년도 수능특강 91p 4-(2)  
"인간과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유기체적 생태 공동체 안에서 개체인 인간에게 전체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고 봄."
30.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 09번 '병'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 관점으로도 살펴 봐야 한다."  
- 경제적 관점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윤리적, 심미적 관점으로도 살펴봐야 한다.
31. 2020학년도 수능특강 92p 4-(2) 심층 생태주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환경 오염 예방이나 경제적 개발의 속도 조절과 같은 피상적 방법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봄."
- 32-33. 2020학년도 수능완성 52p 자료와 친해지기  
"네스와 세션스가 발전시킨 심층 생태주의의 기본 강령은 다음의 원리들로 구성된다... (32)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33)더 나은 삶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변혁이 필요하다..."
34. 2020학년도 수능특강 96p 08번 '갑'  
"...그러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을 정복해 온 결과 오늘날 인간 행위의 영향은 그 규모와 범주가 완전히 새로운 양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차원의 책임이 요구된다."
35. 2020학년도 수능완성 58p 수능 실전 문제 10번 '갑'  
"인류의 실존은 항상 우선적이다. 실존을 통해 자기 규제 가능성과 항상 초월적인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아야 한다..."
36. 2020학년도 수능완성 119p 11번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념에 따르면 나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권리이며, 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나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에 대해 아무런 쓸모가 없다..."
37. 2020학년도 수능완성 123p 7번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38. 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 03번 (보기) 5번 해설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9.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 16번 (보기) 3번 해설  
"요나스는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서도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0. 2018학년도 수능 14번 (보기) 1번 해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다."